

호남 투표 열풍 수도권으로 부나

전국 사전투표율 34,74%...전남 56.5%·전북 53.01%·광주 52.12%
호남 표심 수도권에 영향 줄 듯...“영남·보수층 결집 자극할 것” 전망도

대선  D-1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호남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4·6면〉

광주·전남·북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34.74%로 지난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36.96%)보다 낮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측에서는 내란정권 심판론에 호남이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측에서는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이번 사전투표의 최종 전국 투표율은 34.74%로 집계됐다.

전남 사전투표율은 56.5%로 지난 20대 대선의 51.45%를 갈아치웠고, 전북 53.01%, 광주 52.12%로 호남은 모두 50%이상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전북 48.63%, 광주 48.27%)을 넘겼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역대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호남이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1·3위(1위 전남, 2위 전북 3위 광주)를 차지했고, 세종이 41.16% 강원 36.6%, 제주 35.11%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34.28%, 경기 32.88%, 인천 32.79%를 기록했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25.63%, 부산 30.37%, 경북 31.52%, 경남 31.71% 순이었다.

광주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가 55.07%로 가장 높았고, 남구(55.06%), 북구(53.69%), 서구(51.93%), 광산구(48.07%) 등이었다. 사전투표 자수로 보면 북구가 19만4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15만5341명), 서구(12만4694명), 남구(9만7131명), 동구(5만 820명) 순이다.

전남에서는 신안이 65.61%로 가장 많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곡성(64.75%), 구례(64.57%), 장성(64.55%), 장흥(64.38%), 함평(63.21%), 담양(63.05%), 강진(62.71%), 고흥(62.65%), 진도(62.3%), 완도(61.48%), 해남

(61.47%), 보성(60.68%)에서 60% 이상의 사전투표율이 나왔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순천으로 50.94%였고, 여수(51.19%), 광양(51.38%)가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 첫날인 29일은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튿날인 30일까지 누적결과와 지난 대선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30일 오후 2시 기준부터 지난 대선보다 낮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내란 종식과 정권 심판’론에 호응해 진보층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역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았다는 점은 이재명 후보로의 표심 결집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또 호남 민심 결집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반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호남과 제주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지난 20대 대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낮았다는 점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결이 다른 흐름이다.

또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선거 당일 영남과 수도권 보수층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서울(34.28%), 경기(32.88%), 인천(32.79%) 등 수도권 투표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충남(32.38%), 충북(33.72%), 대전(33.88%)도 투표율이 낮았다.

결국 본 투표 전까지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호응한 이들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일 본투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또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후보 변동이 적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전 마지막 각종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1위를 유지했으나, 보수층 결집으로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여 본 투표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10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 ... 초여름 싱그러운 숲길을 달린다

제10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가 1일 오전 화순군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초록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너릿재 옛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18·20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선 후보들 오늘 선거운동 마무리 유세

이재명,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빛의 혁명’ 호소 김문수, 서울시청 광장서 ‘대한민국 중심’ 외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대선 투표일 하루 전인 2일 서울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 운동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의도공원을 마지막 유세지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이끈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다.

국민과 계엄을 극복한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의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

이 응원봉을 들고 모였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유세 일정을 알리며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 장소가 여의도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가장 빛났던 그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밝

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대선 마지막 유세를 같은 장소에서 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마지막 날 제주 유세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복상하는 ‘종단 유세’를 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에 “서울시청 앞은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피날레 유세지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이 후보가 내세우는 ‘젊음’을, 대구는 ‘보수의 적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대·조선대 의대 지역인재 70% 선발 ▶7면

KIA 위즈덤 ‘6월 반등’ 이끈다 ▶19면

광주, 세계 문학의 중심 - 오월 문학 ▶22면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